

주간기도정보

2024. 7. 1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노년세대 위한 목회 '시급'

현실이 된 '초고령사회' 노년세대에 대한 세심한 목회적 관심 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응답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목회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 고령인구 비율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1월 600만 8,757명(11.79%)으로 600만 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 1,367명(13.60%), 2019년 12월 802만 6,915명(15.48%), 2022년 4월 900만 4,388명(17.45%)으로 빠르게 늘었다.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되는 데에는 불과 27개월이 걸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연말쯤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통계청이 전망한 2025년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게다가 기대수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 최근 50년간 21.2년이나 늘었다.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에 이른다.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 구조와 돌봄 양상, 주거와 생활환경, 건강 상태 등 생활 전반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도 초고령사회에 따른 구체적인 목회 전략 마련이 요구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안동의 한 목회자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경우 1년에 먼 단위에서 출생하는 아기가 때로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현실이 됐다”며 “그럼에도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노년세대의 전도와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교회 안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년세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성구노인복지관 관장 류재룡 목사는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후기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교회에 돌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궁극적 목적인 영혼 돌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이사야 46:4)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누가 복음 2:36-37)

하나님,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미래가 불투명하고 많은 국가적 대안이 필요한 이때 한국교회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시니어 성도들을 존대하고 사랑으로 돌아보아 섬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나라와 가정을 세우는데 힘썼던 노년세대가 외로움, 연약한 육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리라’는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여 한국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북한 돈주들의 도박 유희문화·김씨 일가는 호화유람선에서 휴가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 본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최근 북한 돈주들이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고용해 거액이 오가는 스포츠 도박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은 12일 “돈주들이 전직 국가대표 탁구선수를 고용해 복식으로 한 팀을 이뤄 도박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며 “보통 한 경기당 1,000달러가 오간다”고 전했다.

전직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이 도박 경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선수 생활이 끝난 후 별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선수 시절 입상 경력이 있고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은퇴 후에는 대부분 체육 지도원이거나 학교 체육 교

사로 일하는데, 배급이 많지 않아 생계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전직 운동선수들은 돈주들이 거액의 수고비를 제시하며 도박 경기에 같이 뛰자는 제안을 해 올 때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 염주군의 한 탁구장에서 스포츠 도박 경기에 전직 운동선수가 250달러에 달하는 전자시계를 착용하고 자가용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한다. 도박으로 큰돈을 번 기색이 역력했다는 얘기도.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도 스포츠 도박 경기에 돈을 걸거나 판돈을 내고 직접 참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 “북한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2000년대에 개인 사업가들이 편의시설에 투자하면서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사용이 가능한 탁구장이나 당구장이 생겨났다.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점차 술이나 음료를 마시며 소소한 경기 내기를 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경기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간꾼까지 등장하면서 현재 도박 경기가 꽤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식통은 “요즘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도 이런 도박 경기에 돈을 걸고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며 “즐길만한 여가시설이나 문화가 없으니 이런 건전하지 못한 문화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소유한 80m 길이의 호화유람선이 강원도 원산 전용 별장 인근에서 운항 중인 정황이 최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국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은 “무더위 여름철을 맞아 김씨 일가가 갈마 별장에서 여름나기를 위해 전용 유람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총 4척의 김 총비서 전용 호화유람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상류층 혹은 최고 간부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유람선은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며 유람선은 김씨 일가만 특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착된 유람선도 김씨 일가를 위한 목적으로 운항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탈북단체들이 지난달 대북풍선을 날려 보내며 그 안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넣었는데, 이를 주워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극심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 보낸 ‘쌀 페트병’에도 북한은 날선 대응에 나섰다. 페트병 속 쌀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을 내렸다(출처: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뉴시스 종합).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미가 7:3,7)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시편 53:19-20,22)

하나님, 거액이 오가는 스포츠 도박을 즐기는 돈주들과 운동선수들이 양심을 버리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욕심을 따라 결합하고 있는 북한의 어지러운 소식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갑니다.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도박을 즐기고, 가난한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호화로운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으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소서. 정부의 심한 감시와 폭정, 억압 아래 억눌려 마음이 상한 북한 주민들을 붙잡히 여기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북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

전 세계 흩어진 ‘MK’ 한자리에···“선교사 자녀, ‘선교의 열쇠로’”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 ‘선교사 자녀 모국 초청 수련회’ 개최



“제 또래 MK(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과의 만남을 고대했어요. 튀니지에는 한참 어린 MK들만 있었거든요.” “선교지에는 청소년 수련회나 집회가 없어서 신앙이 흔들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모국 땅을 밟은 선교사 자녀들의 공통된 바람은 ‘친구’였다. 8일 서울 중구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린 ‘선교사 자녀 모국 초청 수련회’ 개회식에 참석한 59개국 300여 MK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의 친구가 됐다.

수련회를 주최한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MK 전문 교육기관이자 초교파 선교단체다.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 자녀를 초청하고 있다. 올해로 26회째인 이번 수련회는 ‘존귀한 자’(THE NOBLE MAN·사32:8)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전한 이병도 정동제일교회 목사는 “우리의 존재는 선교지에서 부모님 사역을 열심히 돕는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예수로 거듭난 자들은 행함을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은 수련회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에게 공동체성을 일깨워주고 평생 동역자를 찾아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련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석자의 89%가 ‘수련회를 통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찾았다’고 답했다.

행사를 지원하는 대학생 MK들은 청소년들의 멘토를 자처했다. C국 출신 대학생 MK 신지수(24) 양은 “항상 섬김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을 MK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교사 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MK들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토래 혹은 대학생들과 나누며 위로받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김백석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 원장은 “그동안 100여 개국 약 3,000명의 MK들이 수련회를 다녀가면서 수많은 선교사 가정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며 “또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적 부르심을 발견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데살로니가후서 2:13-14)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스기랴 8:23)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사 처음부터 이들을 사랑하여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먼저 복음의 영광과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했던 부모님과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생생한 증인으로 자녀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 함께 예수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접 자신을 주님께 드린 선교사 자녀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일어나서 열방 곳곳의 다음세대가 이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께 나아오는 큰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